인문
상경
(오후)

2017학년도 신입학 수시
논술 전형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답안지와 문제지에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는 정답 외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마시오.
-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 고사 종료 후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시 퇴실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등)로만 작성하시오.
   (빨간색이나 파란색 등 사용 금지)
2. 답안지 수정 시에는 지우개(연필, 샤프 사용 시)를 사용하거나, 가로로 줄을 긋고(볼펜 사용 시) 그 위에 재작성 하시오.(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금지)
3. 답안은 1장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답안지 교체는 가능하나 기존 답안지 제출은 절대 불가합니다.
4. 답안지 교체로 인한 책임(시간 부족 등)은 요청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5.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1) 답안을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등)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기를 한 경우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4)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많은 언론기관 내부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실' 보도가 가장 품격 있는 저널리즘이라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다. 이를테면 CNN의 슬로건은 '여러분께 사실을 제공합니다'이다. 네덜란드의 NRC 한델스블라트는 '의견이 아닌, 사실을 전달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줄기차게 홍보한다. BBC는 자기네가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고 큰소리친다.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한 그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가 쇄도한다. 우리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국가신용등급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법안이 가결됐다는 사실, 투표권 행사 제한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연가스 수송관 계획이 입안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뭐란 말인가? 이 사실들은 정치적 삶의 핵심적 질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이 뉴스들은 우리가 뭘 이해하도록 돕는 걸까?

<나>

프레임(frame)은 흔히 구조나 틀을 의미하는데, 대중 매체는 대중의 관심이나 사고방식의 방향을 잡아주는 정신적 구조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프레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매체는 우리에게 단순히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정의한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실제가 아니라 매체가 제시하는 이미지가 실제가 된다. 매체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고 현실을 지배하는 가상현실을 만들어 낸다. 대중들은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를 갖기 힘들어 매체에서 보여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위치에 머물게 된다. 결국 대중들은 매체가 인도하는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다>

□ □ 신 문	○ ○ 신 문
채소류 ◇◇암 예방에 큰 효과 **-발병률 25%나 낮춰** 최근 A 연구소는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면 ◇◇암 발병률이 0.08%에서 0.06%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채소류 ◇◇암 예방에 효과 미미** **-발병률 0.02%p 낮추는 데 그쳐** 최근 A 연구소는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면 ◇◇암 발병률이 0.08%에서 0.06%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문제1]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사실 보도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서술하고, 사실 보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500자, 40점)

[뒷면에 계속]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제학이라는 단어는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또는 텔레비전에서 소비자의 확신에 대해 단조롭게 떠드는 소리를 말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연구하는 기초 과학이 바로 경제학이라고 본다. 포드 자동차를 살지 포르셰를 살지, 직장을 그만둘지 결혼을 할지 등의 결정 말이다. 경제학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추론이라는 독특한 능력이다.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은 본능의 노예가 아니라, 이성의 능력을 사용해 아직 하지 않은 행동의 비용과 이득을 잴 수 있다. 은행 세 군데의 금리가 서로 다를 경우, 수표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는 식의 특별한 장점이 없는 한 사람들은 금리가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 컬럼비아 대학교의 경제학자 베커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사회 부적응자이거나 도덕적인 이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려 깊은 분석 끝에 범죄가 최상의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다 할 돈벌이 재주가 없는 사람은 직장을 구하기보다 자동차를 훔치거나 길거리에서 할머니에게 돈을 빼앗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베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르면 범죄는 또 다른 형태의 사업일 뿐이고, 벌금과 감옥행은 어쩌다 지불해야하는 비용일 뿐이다. 베커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합리적 선택에 관한 자신의 이론이 사람들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을 바꾸거나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뭐든 시작할 때, 베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터이므로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고 긴 시간과 많은 돈을 양육에 쏟아 붓는가? 여러분은 사랑, 감정, 본능 등을 생각하겠지만, 베커의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부모가 미래를 위해 현명한 투자를 한 것이고, 결국은 자식들에게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나>

여러 경제학자들은 복잡한 인간의 행동을 게임과 실험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실험이 '최후통첩 실험'이다.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자. 실험자는 실험대상으로 나선 민수와 소라 둘 중의 한 사람에게 10,000원을 준다. 만약 민수에게 돈을 주었다면 민수가 그 돈을 소라와 얼마씩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제안을 소라에게 제시하게 한다. 민수의 제안을 소라가 받아들이면 공돈 10,000원은 민수의 제안대로 나눠 갖게 되지만 만약 소라가 이를 거부한다면 돈은 다시 몰수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자신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면 민수는 최소한의 금액을 제안하고 소라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게임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평균적으로 배분 몫이 7대 3이 되지 않을 경우에 소라의 역할을 맡은 피실험자는 아예 제안된 돈을 포기했던 것이다. 최후통첩 실험은 이후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최초의 실험 결과와 거의 동일했다. 예로든 실험에서 민수와 같이 제안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40~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건네주었으며, 제안된 금액이 30퍼센트 미만이면 상대방은 그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

버틀러는 인간의 행위를 촉발하는 동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았다. 욕망과 애착은 가장 낮은 단계, 자기애와 이타심은 두 번째 단계, 양심은 가장 높은 단계에 놓여 있다. 버틀러는 허기와 갈증,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성공한 악에 대한 분노 등과 같은 '욕망과 애착'을 어떤 외적 대상들과 관련된 감정이나 경향성으로 보았다. 그러다 보니 욕망과 애착은 경우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행동을 촉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보다 높은 단계에는 '자기애'의 원리가 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최대로, 그러나 분별 있게 추구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욕망과 애착을 통제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과도한 욕망들을 규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애는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냉철한 사고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타심'의 원리가 있다. 이것은 타인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이성적 원리이다. 이타심은 눈앞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바라볼 때 생기는 충동적인 동정심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원리이다. 이타심 또한 자기애처럼 신중하고 냉철하게 작용하면서 보다 낮은 욕망들을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양심'의 원리가 있다. 이상적 인간 본성에서 양심은 욕망과 애착, 자기애와 이타심보다 상위에 있으며, 이들이 어디까지 작용해도 좋은지 그 한계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버틀러는 양심을 하나의 유기적 체계인 인간 본성의 내적 구조 전체를 통제하는 의지적인 작용으로 보았다.

이처럼 버틀러는 인간 본성을 분석하는 데 체계 개념을 사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설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냉소적이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성에 기초한 양심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도덕의 본질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자 했다.

[문제2] 제시문 <나>에서 경제학자들이 ㉠과 같이 예상한 이유를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설명하고,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참고하여 제시문 <가>의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800자, 60점)

[끝]

이 면은 여백입니다.